

ESCO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나아가다

이재우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운용실장

예산부장에서 자금운용실장으로 발령 받은 지 약 6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그의 하루하루는 쏠살같이 지나갔다. 그의 말을 빌리면, 너무 바빠서 개인적인 목표나 바람 등은 생각할 틈도 없을 정도로 말이다. ESCO사업의 중심에 서며 ESCO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을 건네주기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는 이재우 자금운용실장을 만나보았다. 글·사진 최원근(프리랜서)

“신참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1991년 입사 후 기획관리실에서의 첫 근무에 이어 예산부장에 이르기까지 이재우 실장은 약 20년간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그리고 지난 4월 자금운용실장이 되며 관리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부장에서 실장으로 승진하며 부담도 많이 됐어요. 이전에는 실수를 해도 커버해줄 상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렇듯이 신참 관리자로서 맡은 업무에 열심히, 모범이 되는 상사로 일할 각오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실장이 된 지 어느덧 6개월, 그는 처음의 각오를 실현하려는 듯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그의 표현대로 ‘정신 없이’ 말이다. 에너지절약설비 보급부터, ESCO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정부의 예산조기집행대응, 여기에 5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며 숨 가쁜 날들을 보냈다. 특히 그는 올해 ‘에너지절



약시설의 투자 촉진과 ESCO산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국내 에너지절약 시장의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지난 6개월 동안 바쁘게 지내 온 그는 오로지 일에 대한 생각뿐이다. 예산의 한계로 지원을 해주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

“ESCO 투자사업 자금은 7월에 마감되었고, 일반절약시설 자금도 8월 16일 마감된 상태입니다. 다만 에너지절약을 위한 투자 수요가 더 있음에도 예산의 제한적 한계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열정을 지닌 사람은 단순하다. 여기저기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실장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그에겐 결코 ‘신참 관리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열정적인 관리자’야말로 진정 그를 지칭하는 말이 아닐까?

“모든 기업에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지원을 계획 중이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사업 확대정책에 따라 ESCO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더욱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SCO시장의 활성화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타 에너지사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단기간(2~3년)에 실현이 가능한 경제적인 산업이며,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제는 시장 규모에 맞춰 ESCO의 질도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지원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업체의 기술력 향상도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지원방식은 105개 시설 품목을 대상으로 신청과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을 원하는 업체의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파악한 뒤 지원하는 방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즉, 지원을 받으려면 기술력 향상이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ESCO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양만이 아닌 질의 향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다.



ESCO 자금의 조기소진에 대해서 그는 “조기소진이 아닌 적기소진이란 표현이 맞을 듯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에서는 ‘2010년 에너지융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연초 ‘ESCO사업 자금 추천기준’을 공지했고, 기준에 따라 7월말까지 ESCO자금을 접수했다. 7월까지 접수해서 잔여예산이 발생하면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접수순으로 지원하려했으나 자금이 적기에 소진된 것 같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ESCO자금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연말에 진행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와 같이 2011년에도 전년 11월, 12월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선 2011년에 추천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불어 그는 “ESCO투자사업은 진단, 설비교체, 금융지원, 사후관리를 포함한 종합건설링업무이다. 따라서 설비업무 및 금융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높은 부채비율 및 낮은 신용도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에 ESCO공제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ESCO공제가 구성되고 ESCO계약 시 이행보증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ESCO들에 대해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시켜줄 것이라 예상하며 이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ESCO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높은 부채비율 및 낮은 신용도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에 ESCO공제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경제적 투자가치가 높은 경우 민간자금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ESCO사업이 시작된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다. 그 동안 1조 3천억 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고, 한때 1,800억 원까지 지원했던 ESCO정책자금이 현재 1,350억 원 규모로 축소된 실정이다.

“지원자금의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ESCO투자사업이 에너지절약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민간자금이 많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ESCO사업은 정책자금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죠. 민간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투자 가치가 높은 경우라면 민간자금 사용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ESCO사업은 성과배분이 아니라 성과보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며, “ESCO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들도 발전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ESCO산업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배분제가 아닌 성과보증제로의 변화. 이는 무엇보다 기업의 기술력이 우선 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ESCO업체들은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더 많은 인재를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ESCO의 질적 양적 활성화를 이뤄줄 것이기 때문이다. ESCO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투자 사례집 배포(3,000여 곳) 및 지역에너지 공무원 교육, 대학 및 단체 강의, 지역별 에너지 서포트 제도 운영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의 노력 없이도 ESCO산업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을 맞춰 활성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실장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규모만이 아닌 질적으로 기업과 ESCO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